

# 강진, ‘관광→삶의 터전’ 바꾸는 생활인구 힘 쓴다

한국관광공사와 협업…‘살아보고·일하고·창업’ 로컬 정착 실증  
병영면·성전면 연계 이원 구조 추진…“찾아와 머무는 목적지”

강진군이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26 BETTER리(베터리) 인구감소지역 관광인구 충전 지원사업’ 협업 지자체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에서는 전국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강진군과 전북 김제 시 2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베터리(BETTER리)사업은 국비 5억원을 투입해 인구감소지역의 관광·문화 자원을 활용해 관광스타트업을 유치·육성하고,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실증하는 사업이다.

관광을 ‘방문’ 중심에서 ‘생활인구’로 전

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단순한 관광객 증가가 아니라 체류·소비·창업·정착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민간 주도로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과 체류객이 머무는 로컬살이 실험실 in 강진’을 주제로, 병영면(생활)과 성전면(기술)을 연계한 이원 구조의 실증 모델을 추진할 계획이다. 병영면은 전라병영성과 시장, 양조장 등이 결합된 경제 결합형 로컬 생활권으로, 관광 스타트업이 머물며 체류·소비가 실제로 발생하는지를 실험하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강진군이 올해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BETTER리(베터리) 인구감소지역 관광인구 충전 지원사업’ 협업 지자체로 최종 선정됐다.

성전면은 구 성화대 부지를 활용한 청년 글로컬 플랫폼을 거점으로, 기술·창업·워크스페이스 기능을 집적해 관광을 넘어 ‘일하고 창업하는 공간’으로 확장하고, 이

흐름이 다시 지역 소비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특히 군은 그동안 추진해 온 반값여행 정책, 도시재생사업, 청년 글로컬 플랫폼,

빈집 활용 마을호텔, 푸소(FU-SO) 체류 프로그램 등과 베터리 사업을 연계해, 실증 결과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군정 정책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관광객 중심

의 단기 방안을 넘어, 반복 방문과 체류로 이어지는 생활인구 확대에 집중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관광을 통해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이제는 민간 스타트업이 실제로 지역에 들어와 ‘살아보고, 일해보고, 창업해보는 과정’이 가능한지 검증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며 “베터리 사업을 통해 강진이 ‘스쳐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찾아와 머무는 목적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관광공사는 강진군과 함께 2026~2027년 2년에 걸쳐 관광스타트업 공모·선정, 실증사업 운영, 후속 사업비 투입 등을 통해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강진=이진목 기자 sa4332252@



나주시는 최근 나주밥상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나주밥상 브랜드화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 미식 관광 ‘나주밥상’ 브랜드화로 2026 나주 방문의 해 성공다짐

시, 지정업소 설명회 개최…외식경영 컨설팅 등 체계적 운영

나주시가 “2026 나주 방문의 해”를 맞아 지역 대표 미식 브랜드인 ‘나주밥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정업소와의 협력을 본격화하며 관광객 만족도를 높이는 체류형 관광 기반 마련에 나섰다.

6일 시에 따르면 최근 나주밥상 지정업소 대표자 44명과 나주시 외식업자부 2명을 대상으로 ‘나주밥상 브랜드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과

지원 사업을 공유했다.

이번 설명회는 나주밥상을 지역 대표 외식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취지와 세부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지정업소 대표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2026년 나주밥상 브랜드화 사업 추진 방향을 비롯해 지정업소 운영 기준과 관리 방향, 외식업 품질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관광과 연계한 콘텐츠

개발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안내됐다.

특히 나주밥상 브랜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지정업소의 역할과 책임, 자발적인 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이 이뤄지며 참석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시는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지정업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 물품 지원과 노후 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대외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2026 나주방문

의 해 관광객 유입에 대비해 위생 안전과 친절 서비스 교육, 식중독 예방 관리, 외식경영 컨설팅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윤병대 시장은 “나주밥상은 나주의 역사와 문화, 삶의 이야기가 담긴 중요한 관광 자산이다”며 “지정업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나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차별화된 미식 경험을 제공하고 2026 나주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 순천, 우주·방산·그린바이오 기반 구축

남해안남중권 소비·관광도시 도약 다짐

순천시가 새해 주요 시정 방향으로 우주·방산 산업과 문화산업, 그린바이오 기반 구축을 핵심 성장축으로 제시했다.

시는 최근 대회사에서 공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사무식을 열고 새해 시정 운영 방향과 비전을 공유했다.

노 시장은 신년사에서 앞서 순천광양 첨단산업단지에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한 아이디어를 언급하고 전남 지역의 풍부한 신재생에너지와 우수인력, 정주 여건을 갖춘 순천이 반도체 산업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또 공간·생활 인프라 재편과 남해안남중권 소비·관광도시 조성을 주요 시정 과제로 제시했다.

시는 앞으로 미래 전략 산업 육성과 청렴한 행정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경쟁력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사무식에서 “청렴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공직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투명한 업무 처리, 깨끗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금품 등 수수 금지, 행동강령 준수 등을 다짐했다.

노관구 시장은 “하늘엔 우주, 도심엔 문화, 대자연 그린바이오로 순천의 미래를 꼭 채우겠다”며 “추격이 아닌 선도, 모방이 아닌 창조, 규모의 경쟁이 아닌 자강 도시로 도약하는 일류 순천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

## 고흥 ‘선영홍 유허비’ 등 4건 향토유산 지정

지역 문화 위상 제고…“문화유산 위상 제고”

‘고흥 어전리 선영홍유허비’를 포함한 총 4건이 고흥 향토유산에 지정됐다.

6일 군에 따르면 신규 지정된 향토유산은 고흥 어전리 선영홍 유허비, 고흥 덕흥리 이간명 적려유허비, 고흥 마륜리 김해감씨 열부정려각, 고흥 세모재 등 총 4건이다.

금산면 ‘고흥 어전리 선영홍 유허비’는 1913년 건립된 비석으로, 구한말 대표적 호남 유학자인 송사 기우만이 비문을 썼다. 해당 비석은 가난한 이웃을 널리 돕던 우당 선영홍 선생의 은덕을 기리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그 활동상이 재조명받게 됐다.

동일면 ‘고흥 덕흥리 이간명 적려유허비’는 조선 후기 문신 이간명의 유배 생활과 덕행을 기록한 비석이다. 1768년에 세워진 비신(비 몸체)의 높이 2.2m에 달하는 대형 비석으로, 하

단 받침돌에 새겨진 문양이 매우 독특하고 희귀해 보존 가치가 높다.

동강면 ‘고흥 마륜리 김해감씨 열부정려각’은 고려 신공령의 처 김씨의 정려를 기리는 것으로, 내부에 남은 중수기 편액과 관련 기록을 통해 그 역사성이 명확히 증명돼 향토유산으로 이름을 올렸다.

대서면의 ‘고흥 세모재’는 1905년에 건립된 재실 건축물로, 건축형식이 매우 독특하다. 고흥지역 재실에서 흔히 확인되는 누마루와 계자난간을 보면서도 온돌방 전면의 ‘마루형 반자’라는 희귀한 건축 기법이 사용돼 주목받았다.

기존 향토유산 제5호였던 ‘봉암사 이여재’는 가치를 인정받아 전남도 민속문화유산으로 승격됨에 따라 이번 심의를 통해 군 향토유산에서는 지정 해제됐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어전리 선영홍 유허비



덕흥리 이간명 적려유허비

곡성, 지방소멸 대응 체계 논의  
사람 중심 사업 필요성 ‘공감’

곡성군은 최근 군청 대동마루에서 ‘지방소멸대응 추진체계 제2차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전략회의는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고 민간산학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지방소멸대응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곡성군·곡성군의회 관계자, 산학협력단 실무협의회 위원,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 부서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 조정 내역과 주요 기금사업 추진 방향을 이야기했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기금 운영 방향 개편에 따라 기존 시설 조성 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나, 체류·정주 인구 확대와 지역 소비 활성화로 이어지는 사람 중심의 사업 전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군은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총 80억원의 기금을 확보했다. 곡성=김유변 기자

## 함평, 전국 첫 농촌형 이동장터 운영 본격화

21개 마을·월 2회 운영…‘식품 사막화’ 해법

함평군이 농촌 식생활 불편 해소와 생활밀착형 복지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찾아가는 농촌형 이동장터’가 본격화된다.

6일 함평군에 따르면 최근 청사 소회의실에서 나비골농협과 ‘해보면 찾아가는 농촌형 이동장터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상의 군수를 비롯해 김영철 나비골농협 조합장과 해보면 주민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이동장터의 향후 운영 방향과 역할 분담에 대해 논의했다.

‘찾아가는 농촌형 이동장터’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농촌 지역의 식료품점과 소매점이 줄어들면서 생필품 구매가 점차 어려워지는 이른바 ‘식품 사막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차량에 생필품을 싣고 마을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식 판매 서비스다.

군은 지난해 9월 전남 장성, 전북 완주, 경북 의성, 충북 청주 등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의 ‘찾아가는 농촌형 이동장터’ 시범 사업 지역으로 선정돼, 10월부터 나비골농협과 협력해 해보면 일부 마을을 대상으로 농촌형 이동장터 ‘함금마차 나비장터’를 시범 운영해 왔다.

군은 나비장터 운영 과정 중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사업의 필요성과 운영 개선 방향을 확인했으며,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협약에 따라 올해부터 나비골농협이 ‘함금마차 나비장터’를 본격 운영해 해보면 21개 마을을 월 2회 직접 찾아가 생필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일상 생활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은 이동장터를 물품 판매 기능에 더해 어르신 안부 확인과 돌봄, 다



이상의 함평군수(오른쪽)는 최근 청사 소회의실에서 나비골농협과 ‘해보면 찾아가는 농촌형 이동장터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양한 생활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한 농촌 생활밀착형 복지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해보면 농촌형 이동장터는 변화하는 농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생활 서비스”라며 “행정과 농협, 주민이 함께 만드는 협력 모델을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농촌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함평=최일균 기자 6263739@gwangnam.co.kr